

<번역 논문>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과 오경 분석¹⁾

조지 F. 무어(George F. Moore)*
김선종**, 김진아*** 번역

현대 구약 학자들의 대다수가 오경을 합성적인 작품(composite work)으로 여긴다. 지배적인 가설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재건된 다음에 살았던 어느 저자가 종교사와 성스러운 제도와 관습의 기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이른 시대에서부터 적어도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애썼다. 그의 자료들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와 여러 관점에서 그 이전에 같은 일을 시도했던 다른 사람들의

* George F. Moore, "Tatian's Diatessaron and the Analysis of the Pentateuc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 (1890), 201-215.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부교수. sjkim@htus.ac.kr.

***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gloriaaa92@gmail.com.

1) 조지 F. 무어(George F. Moore, 1851-1931년)는 하버드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였고, 대표작으로는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udges*, ICC 7 (Edinburgh: T & T Clark, 1895)이 있다. 구약학자로서 무어는 자신과 같은 시대에 오경 형성 가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벨하우젠(J. Wellhausen, 1844-1918년)의 네 문서 가설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본 논문을 기술하였다. 타티아누스(Tatian, 120-180년경)가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해 서로 다른 전승을 전하고 있는 개별 복음서들에서 하나의 단권 복음서인 디아테사론(Diatessaron)을 저술한 사실에 착안하여, 저자는 오경 역시 서로 다른 자료로부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무어는 타티아누스가 네 복음서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역사비평가들이 오경에서 발견하는 모순, 불일치, 반복 등을 해결하려는 조화, 연결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데 근거를 둔다. 물론 이러한 무어의 가설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 논문은 19세기 후반의 신약성서 사본학과 구약성서 비평학 등에서 당시 성서학의 통합적인 연구 분위기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성서학과 교회사, 성서학과 영성사를 잇는 간학문적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번역을 세심하게 읽고 여러 귀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글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현대 문학가는 이전에 서술된 이야기(narrative)들을 소화하고, 역사의 진보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서로 다른 시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계획을 세워, 자신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 전체 이야기(whole story)를 고쳐 쓸 것이다. 오경의 저자 — 그를 ‘편집자(redactor)’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목적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 — 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계속 이어지는 단일한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의 자료들을 자르고 함께 맞추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병행하는 기술(parallel accounts)을 발견할 때에는, 그는 상황에 따라 순서를 결정했다. 만약 그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하나로 묶기 힘들면, 그는 그것들을 다른 사건에 대한 기술로 여겼고, 보통 다른 장소에 둘 다 포함시켰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같으면, 그는 하나를 사용하고 다른 것을 생략했다. 많은 경우에 그는 그것들 중 어느 하나에서 발견한 모든 세부 사항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그것들을 기발하게 하나로 엮었다. 그가 자기 힘으로(*de suo*) 추가한 것은 주로 구절의 변형이나 그의 단편들을 함께 끼워 맞추고 접합시키기에 필요했던 사실의 변형, 또는 대체로 그의 자료들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원래의 형태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서너 개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끊임없는 이야기 — 합성적인 **토라** — 를 만든다.

이 이론에 반대하여 책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은 전례가 없다고 적잖게 주장된다. 최근 한 미국 학자가 분석에 이름 붙인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조각 누비(crazy patch-work)”는 문학과 유사점이 없다. 구약 주변 세계의 문헌(Oriental literature)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은 이 주장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단지 그것만으로 비평적 학자들의 이론이 거짓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다고 낙인찍는다. 비평적 학자들에게 쉬운 이 방식이 아무리 보통 사람에게 유력하다고 할지라도, 특히 약간의 풍자로 흥취를 돋을 때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전제가 거짓이다. 문학은 비평이 오경의 저자에게 돌리는 모든 절차에 대한 충분한 예들을 제공한다. 나는 여기에서 문서들에 기인한 형성 가설에 가장 눈에 띄고 완전한 병행을 제공하고, 그 결과 오경의 비평가에게 가장 유익한 한 작업 — 타티아누스(Tatian)의 디아테사론(Diatessaron)²⁾ — 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

2) 역자 주: 최초의 영어 번역을 위해서는 S. Hemphill, *The Diatessaron of Tatian: a Harmony of the Four Gospels Compiled in the Third Quarter of the Second Century* (London: Hodder & Stoughton; Dublin: William McGee, 1888)를 보라. 이 책의 전문은 <https://archive.org>에서 pdf 형식으로 볼 수 있다(<https://ia800205.us.archive.org/8/items/diatessaronofat00hempiala/diatessaronofat00hempiala.pdf>).

를 바란다.

복음서들에 대한 이러한 조화 복음서(harmony)는 2세기 중반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시리아어였는지 그리스어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 나에게서는 내적 증거가 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여러 세대 동안 대부분의 시리아 교회 가운데 복음서였고, 그저 복음서로서 인용되었다. 4세기에 현재의 형태로 된 저작인 <아따이의 가르침> (Doctrines of Addai)³⁾은 그것의 사용을 사도 시대까지 이끌어 가며, 그것이 에데사 (Edessa)⁴⁾의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의 원래적인 형태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5세기가 시작된 다음에 변화가 왔다. 에데사의 주교인 라블라(Rabbula, 411-435년)는 그의 교구의 교회들에 개별 복음서들(separate Gospels)의 사본들을 제공해서 그것들을 읽게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몇 년 후, 치루스(Cyrrhus)의 주교인 테오도레투스(Theodoret, 423-457년)⁵⁾는 디아테사론이 그의 교구에 있는 200개의 교회 — 전체 수의 4분의 1 — 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몰수했고, 그것들을 네 복음사가에 의한 복음서들의 사본들로 대체했다. 이 이름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디아테사론의 일반적인 이름인 ‘합성 복음(Composite Gospel)’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큐레턴(Cureton)을 난처하게 했고 번스타인(Bernstein)이 전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설명을 제안했던 큐레턴(Curetonian) 파편들에서 마태복음의 제목은 이 대조를 보여 준다. 그것은 “개별 복음, 마태복음”이다. 11세기에 한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 학자가 번역한 아랍어 번역은 합성 복음이 그 자체로 훨씬 늦은 때까지, 교회에서 사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어로 ‘넷(tessaron)[네 복음서]을 통하여(dia)’를 뜻하는 디아테사론은 유세비우스(Eusebius)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아테사론이 본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는지 논란이 많지만, 셈족어의 구문론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시리아어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William L. Petersen, “Diatessaron”, *ABD* 2, 189-190을 보라.

- 3) 역자 주: 최초의 영어 번역을 위해서는 G. Philips, *The Doctrine of Addai, the Apostle, Now First Edited in a Complete Form in the Original Syriac* (London: Trübner & Co., 1876)을 보라. 마찬가지로 이것의 전문도 <https://ia802607.us.archive.org/18/items/doctrineofaddaia00phil/doctrineofaddaia00phil.pdf>에서 얻을 수 있다. <아따이의 가르침>에서 아따이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에데사에 보낸 예수의 제자로 나타난다.
- 4) 역자 주: 에데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 잡은 오스로에네 왕국의 수도(오늘날 터키의 우르파)로서 아람어와 시리아어 문학의 본거지이자 동부 시리아 교회의 중심지였다. 기원 후 2세기에 이곳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성경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것(페쉬타)으로 보인다. 참조, 송혜경, 『신약 외경 - 입문 (하권): 신약 외경 각론』,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2 (서울: 마오로딸, 2016), 286-293.
- 5) 역자 주: 테오도레투스의 삶과 사상과 저작을 위해서는 H. R. 드롭너, 『교부학』, 하성수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595-602를 보라.

도 사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최근까지도 복음서들에 대한 이 조화 복음서는 6세기에 카푸아의 빅터(Victor of Capua)가 발견한 사본으로서 많이 고치고 덧붙인 라틴어 조화 복음서, 그리고 아르메니아어(Armenian)로 보존되다가 1836년에 출판되고 1876년에 라틴어로 번역된 시리아 사람 에프라임(Ephraim the Syrian)의 주석을 통해서만 알려져 왔다.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찬(Zahn)은 1881년에 그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conspicuous success)로 여겨져야 하는 것을 가지고 디아테사론을 재구성했다. 타티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랍어 조화 복음서가 바티칸 도서관에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라가르드(Lagarde)가 그것의 견본을 치아스카(Ciasca)의 사본으로부터 1886년에 인쇄하였다. 1888년에 치아스카는 두 필사본 — 바티칸 아랍어 사본 XIV와 최근에 보르지아(Borgianum) 박물관이 입수한 사본 — 으로부터 전체를 편집했다.⁶⁾ 이제부터 살펴볼 것처럼, 본문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짜임새에서 이 번역이 오랫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디아테사론을 보여준다는 데에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디아테사론의 형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식은 찬의 재구성에서 그의 자료들의 성격상 우리가 그다지 잘할 수 없었던 방식이다.

저자는 복음서 저자들의 언어를 써서, 네 복음서로부터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하나의 연속되는 이야기를 엮고자 했다. 그의 자료들은 두 개의 집단, 곧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으로 나뉘었다. 후자는 자주 동일한 병행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생략이 필요했다. 넷째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와 병행하는 것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복음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의 작품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한 수치는 요한복음의 880구절 가운데 대략 847구절, 곧 96퍼센트 이상이 디아테사론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1071구절 가운데 약 821구절, 곧 76.5퍼센트, 마가복음의 678구절 가운데 340구절, 곧 50퍼센트가 넘는 부분, 또한 누가복음의 1151구절 가운데 761구절, 곧 66.2퍼센트의 구절이 디아테사론에서 발견된다. 요한복음을 다른 세 복음서와 결합하는 데 주된 어려움은 물론 연대기적인 것이었다. 찬은 저자가 넷째 복음서의 짜임새(scheme)에 따라 그의 자료의 대부분(Hauptmassen)을 배열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질

6) 역자 주: 이탈리아의 추기경 치아스카(Agostino Ciasca, 1835-1902년)는 디아테사론의 아랍어 역본을 발견하고 편집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William L. Petersen, *Tatian's Diatessaron: Its Creation, Dissemination, Significance, and History in Scholarship*,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25 (Leiden: Brill, 1997), 448 이하를 보라.

적으로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요한복음에 있는 다양한 여행과 절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현재 목적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물음은 아니다. 이러한 최초의 그리스도전(Life of Christ)의 구성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나는 분석적인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써 다른 조화 복음서들, 또한 현대의 그리스도전들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는 단지 작품의 형성에만 관심이 있다.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경우처럼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 경우, 저자는 단지 그것을 배치할 적절한 지점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은 순전히 배열의 문제이다. 이러한 배열에서 그는 부분적으로는 복음서 자체의 순서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다른 복음서들 안에 있는 상황이나 단락의 내용의 유사성에 의해 지침을 받았다.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기술이 너무 달라서 결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 기술들을 나란히 놓았다. 예컨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공관복음 연구자에게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준다. 타티아누스는 목자들의 경배, 성전에서의 소개, 또한 나사렛으로의 귀환을 포함하여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달한다(2:1-39). 그는 그리고 나서 “이 후에”라는 말을 가지고 마태복음으로부터(2:1-23) 동방박사들의 출현과 경배에 관한 이야기, 이집트로의 도피, 또한 나사렛으로의 귀환과 정착(establishment)을 끌어 들인다.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충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배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장의 끝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다. 2장의 첫 이야기에서, 독자는 이 동방박사들이 갓 태어난 유대인의 임금을 찾아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읽는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안내되고, 그곳으로 여행하고, 그를 경배하고, 자기들의 길을 간다. 아직 베들레헴에 있는 요셉은 꿈에서 헤롯의 의도에 대한 경고를 받고 이집트로 달아나는데, 그는 유대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해서 헤롯이 죽은 후에야 나사렛에 거처를 마련한다. 이 경우는 더욱 주목할 만한데, 이는 저자가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그의 인용구(extract)를 39절 대신에 38절에서 끝냄으로써, 가장 두드러지는 모순을 없앨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양심을 가지고 그의 자료들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이 사례는 구약성서 비평가에게 교훈을 준다. 만약 오경의 편집자가 그의 자료에서 이런 종류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발견했다면, 그가 그것들을 조화시키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오히려 조화(conformation)시키거나 생략해서 그의 이야기에 통일성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추론의 결과는 우리가 발견한 모순이 모두 우리 자신의 상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전제와 추론은 근거가 없다. 오경의 저자는 두 작품 사이에서 창조의 순서를 조화시키는 어려움을 거의 염려하지 않고 창세기 2:4에서 3장을 창세기 1장에 나란히 놓았는데, 이것은 마치 타티아누스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성가정의 나사렛 귀환 사건 다음에 놓았을 때와 같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료에서 얻은 모든 것을 그의 저작에 구체화하고자 했다. 내용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저술이 자라나는 현상을 훌륭하게 보여 주는 이븐 히삼(Ibn Hisham)의 <무함마드의 삶>(Life of Mohammed)에서, 똑같은 결과를 가진 똑같은 목적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가 그의 자료에서 발견한 기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다른 문맥(connection) 안에 놓이거나 예수의 사역 기간 중 다른 시점에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경우, 우리의 저자는 많은 현대의 공관복음 연구자들처럼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요한은 성전 정화를 예수의 공적 사역 기간에서 가장 이른 때에, 공관복음은 가장 마지막 때에 놓는다. 타티아누스가 마태의 기술(account)만큼 전반적으로 요한의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사건(transaction)과 관련해서는 마태의 기술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가 도시에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났는지 떠날 때 일어났는지, 눈먼 사람이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와 같이 공관복음에서 차이가 있는 여리고의 눈먼 사람의 치유와 관련하여 저자는, 여기에서 두 개의 다른 기적이 있었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이는 많은 현대 학자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이 질문을 다룬다.

두 보도(report)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만 상세한 부분이 다른 경우에, 저자의 원칙은 그의 자료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그의 조화 복음서 안에 구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예는 8-10장에 있는 산상설교인데, 마태복음은 더 완전한 보도로서 그의 주된 자료이지만, 그는 누가복음 특유의 모든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복 선언(the Beatitudes)은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처럼 복에 상응하는 화 선언(Woes)이 이어진다.⁷⁾ 그리고 그것은 도처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들을 결합시키지 않았고, 복음서들의 다른 문맥에 나오는 많은 예수 말씀을 그의 산상설교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에 연결되어 있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은, 같은 잠언적 표현이 다르게 적용된 마가복음

7) 역자 주: 눅 6:24-26.

의 단락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공관복음에 있는 예수의 더 긴 담화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곧 같은 주제나 같은 등장인물을 담은 예수 말씀들을 결합하는 현상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다.⁸⁾

자료들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발견된 모든 세부 사항을 보존하고, 그러면서도 반복과 딱딱한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에 대한 둘 혹은 그 이상의 병행하는 기술이 보통 기발한 독창성, 때때로 아주 세밀한 복잡함으로 뒤섞여 있다. 일례로, 갈릴리 바다에서의 광풍과, 이어지는 장면인 귀신들린 사람의 이야기인 마가복음 4:35 이하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본문들과 함께 선택해 보자.⁹⁾

막 4:35a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눅 8:22b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막 4:36a	그들이 무리를 떠나
눅 8:22a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막 4:36b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마 8:24a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눅 8:23b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막 4:38a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마 8: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눅 8:24b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막 4:39b-41a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눅 8:25b-27a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26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8) 또한 46장에서, 눅 22:35-38이 어떻게 요한의 고별 연설에서 요 14:31a와 b 사이에 덧붙여졌는지도 관찰하라.

9) 이 단락은 문자적인 번역으로 주어진다. 둘째 예시인 예수의 세례에서, 복음서들의 친근한 말로 그러한 구성에 대한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한 가깝게 영어 번역본(English version)을 따랐다. (역자 주: 이 번역에서는 『개역개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참고로 무어의 논문에서는 디아테사론의 단일 복음을 반영하여 사복음서에서 인용한 모든 구절이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 막 5:2b**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니라
- 눅 8:27b**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
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 막 5:3b-4a**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땄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
렸음이라
- 눅 8:29b**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 막 5:4b-5a**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
에서나 산에서나
- 마 8:28**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 막 5:5b-7a**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
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 눅 8:28b**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막 5:7b**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 눅 8:29a-33a**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
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
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
야로 나갔더라) 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
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 마침 그 곳에 많은 돼
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
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
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것은 저자의 방법에 대한 부당한 실례(unfair illustration)가 아니다. 네 개의 자료가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예수의 세례와 시험에 관한 이야기에 서처럼 섞어 짜인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 마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 눅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
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 요 1:29-3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

- 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 마 3:14-15**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 눅 3:21a**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 마 3:16b**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 눅 3:22a**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요 1:32-34**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 눅 4:1a**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 막 1: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 막 1:13b**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 마 4:2a**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 눅 4:2b**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잠수시지 아니하시니
- 마 4:2b-7**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눅 4:5-7**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오경을 최대한 꼬치꼬치 따지는 분석은 이 합성 복음과 비교해보면 냉정해 보인다. 미드(Mead) 교수의 비유를 사용하면, 오경은 비평적 학자들의 가장 허황된 생각(wildest dream)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조각 누비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일성 있는 저작으로 만들 때 생각 이상으로 저자가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것을, 특히 섹족어로 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의 내용 역시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이 조각 누비는 무관심한 역사 저술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교회의 성스러운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복음서들을 대체하도록 의도되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매우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상당히 많은 시리아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될 때, 개별 복음서들을 거의 완전하게 대체했다. 이것이 5세기에 이들 교회의 사용에서 퇴출당한 이유는 명백하게 단지 외부의 세력(influences) 때문이었다. 실제로 아프라하트(Aphraates)와 에프라임¹⁰⁾은 개별 복음서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시리아 교회가 서쪽의 보다 큰 교회와 끊임없는 접촉 없이 홀로 남겨졌다면,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복음서들에 대한 지식을 결국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때에는 오경의 역사에 필적하는 것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저자가 그의 자료들을 다루는 방식은 어느 정도 더 자세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위에서 광범위한 생략을 부수적으로 언급했었다. 이것은 전체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데, 공관복음서만 치더라도 약 3분의 1에 달한다. 생략된 사건(matter)의 대부분은 공관복음서에 있는 병행에서 온 것이고, 저자는 사실(fact)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과 세부 사항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닌 두드러지는 하나의 생략은 이미 교부들이 언급했다. 타티아누스는 예수의 두 가지 족보를 제외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이 문서들을 생략해야 했는지 몰라도, 이 사실이야말로 자료에 대한 그의 자유로운 태도에 관한 눈에 띄는 증

10) 역자 주: 아프라하트(Aphraates, 260/275-345년)와 에프라임(Ephraim the Syrian, 306-373년)은 디아테사론을 사용한 시리아의 대표적인 교부들이다. 이들의 삶과 사상을 위해서는 세바스티안 브로크 편역, 『시리아 교부들의 영성』, 이형호 역 (서울: 은성, 2003)의 4-5장을 보라. 마르시온(Marcion of Sinope), 바르 다이산(Bar Daisan), 마니(Mani)에 반대한 에프라임이 동방교회사와 영성사에 끼친 영향을 위해서는 H. R. 드롭너, 『교부학』, 685-699; 서원모, “예언자적 역사해석 - 시리아 교부 에프렘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11 (2002), 125-149; 서원모, “시리아 교부 에프렘의 실존적 신학”, 『선교와 신학』 24 (2009), 201-242; 서원모, “시리아 그리스도교의 가난 담론 - 에테사(주후 4세기 말-5세기)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4 (2012), 199-227 등을 보라.

거이다. 만약 그것들이 그에게 엄격하게 정경적인 권위(canonical authority)가 있었다면, 그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책에서 그것들을 감히 삭제했을 것 같지는 않다.

복음서들은 예수의 삶에 대한 사건들을 같은 순서로 제시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그 자신의 짜임새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순서는 누가복음의 순서와 다르다. 연결된 이야기는 가장 자유로운 전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독자들은 이것을 디아테사론의 모든 장에서 발견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1-2, 5-7은 4장에, 13-22a절은 5장(14b절, 15절, 또한 7장에)에, 20-30절은 17장에, 42b절, 43절은 7장에, 44절, 31-41절은 6장에 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예수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앞서 일어나는 성전 정화에 대한 기술로 이어지게 되는 것 등이다.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병행에 단락을 연결시키기 위해, 단락이 전체적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떤 주어진 행위에 대해 병행하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나 어떤 격언의 보고를 함께 작업할 때, 구절들, 구절들의 일부분, 또한 단일한 구들의 가장 복잡한 전환(transposition)이 끊임없이 필요하기도 하다. 내가 나중에 말할 위치 전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단어나 구절의 사용은, 그 외에는 전환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 다른 자료나 구절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그들의 원래 문맥에서 취해진다.

저자는 그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거의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대로 괜찮은 연결이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종종 명백한 주제를 만들어 내거나 생략해야만 했고, 전환과 관련된 여러 불변화사들을 바꾸어야 했고, 때로는 자신의 말로 연결부를 만들어야 했다. 이미 언급했던 경우인데, 예컨대 그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말을 간단하게 “이 후에”로 교체함으로써 마태복음 2:1을 누가복음 2:39에 연결한다. 마가복음 3:14는 열 두 제자의 선택을 말한다. 누가복음 6:13-16 다음밖에는 그것을 배치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열둘을 그가 세우셨다”라고 변형시켰고, 그래서 마가복음 원본에서처럼 열 두 제자의 명단을 소개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소개한 명단을 요약하도록 만들어졌다. 마태복음 12:32-34는 “그가 다시 말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마가복음 3:28-30에 나란히 있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한 경우들은 매우 일반적이다. 내가 위에서 말했듯이, 원래의 문맥에서 구절이나 절을 가져오거나 마지막 낱말들을 원래 뒤따르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의 자료 가운데 하나를 잘라냄으로써 연결이 종종 이루어진다. 따라서 누가복음

4:38은 독자에게 예수가 회당에서 나가는 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던 것 등을 말해 준다. 저자는 여기에 마태의 소명을 넣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만든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등과 같다(눅 4:38a; 마 9:9b; 막 1:29; 눅 4:38b-39). 누가복음 6:27에서 독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등을 읽는다. 타티아누스는 누가복음 6:24-27을 마태복음 5:13에 연결하기 위해 도입 구절을 사용하여, 그것은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등으로 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상당히 매끄러운 연결이, 원래는 서로에게 전혀 관련되지 않은 단락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어나 그리스어로 하는 것보다 셈족어로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스어 복음서들의 유사한 조화 복음서는 파편들(bits)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문법 구조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아어에서는 간단한 병렬적인 구조(paratactic structure)가 규칙인데, 그리스어에서 복합문의 각 요소들을 떼어서 병렬시키더라도 각각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고, 문장에 있는 대부분의 어느 절(clause) 다음에서도 문장을 파괴하지 않은 채로 문장을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아랍어 디아테사론에는 오경과 뚜렷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 합성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자료들은 구별 기호(diacritical sign)로 식별된다. M은 마태를, R은 마가를, Q는 누가를, H는 요한을 나타낸다. 보르지아(Borgian) 사본에는 이 기호들이 전반적으로 빠져 있어서, 본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나 머리말은 이 기호들을 가진 사본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티칸 사본에서는 종종 잘못 사용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었다. 치아스카는 원본이 그러한 기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손으로 추가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것이 그다지 있을 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기호가 없는 본문에 이러한 기호들을 추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우면서도 실용성이 없는 작업이 될 것이고, 겨우 봐줄 만한 정도의 정확성(tolerable degree)만 얻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대 필사자들은 그것을 쓸모없다고 여겨서 삭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디아테사론의 본래의 저작(composition)에 있는 그러한 기호들을 사용해서 자료들을 구별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경의 형성 과정(composition)에 대해 우리

가 관찰해 온 모든 유비보다 그것¹¹⁾이 더 유사하지 않은가? 디아테사론의 각 파편(fragment)이 자신의 복음서의 이름을 지닌다면, 우리가 완전히 분해하고 재배열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이 실재하는 저작(real composition)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디아테사론이 하나의 실재하는 저작이라면, 분절들을 초월해서 문법적, 심리적인 연결을 가지고 디아테사론을 매끄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누구나 쉽게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책을 공적으로 읽을 때에는 복음서 저자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때때로 매 대여섯 마디마다 의미가 깨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구별 기호들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자들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경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합성 저술(composite work)이었다. 그러나 만약 저자가 진정한 합성 복음을 의도했다면, 구별 기호가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가? 이슬람 전통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대답하기 위해서 당황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lsnād'¹²⁾이다. 예수의 삶과 말씀에 대한 전승은 그들이 물려준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어떤 사람들 — 마태, 베드로, 요한 —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기독교 전승의 원천에 서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관점에서 둘째와 셋째 복음서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기원을 두었다. 그러므로 타티아누스는 정확하게 전체의 무게가 자료들의 이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의 자료들에 이름을 붙인다. 그것은 마치 이븐 히삼이 그의 <무함마드의 삶>에서, 하나의 주어진 관계가 그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의 이름을 모든 경우에 적시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는 오경과 완전히 달랐다.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문헌으로부터 우리가 유비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사실은 편찬자(compiler)가 엮은 자료들이 익명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이 자료들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그들 모두에 대한 저자의 이름이 알려져 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슬람 전통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와 동지들 가운데 한 명이나 예수의 삶에 대한 기독교 전승, 곧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한 명의 관계와 같지 않다. 따라서 오경의 편찬자가 그렇게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름으로 그의 역사를 구성한 자료들을 구별할 이유가 없었다. 똑같이 고려하면, 왜 오경의 저자보다 타티아누스가 그의 자료들을 더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디아테사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만큼 배타적으로 그들을 따랐는지 아닌지는 매우 적절한 질문이다. 후자는 시리아 교회의 성서를 따라서 체계적으

11) 역자 주: 디아테사론의 형성 과정을 말한다.

12) 역자 주: '권위'라는 뜻이다.

로 개정되어 왔고, 일단 그것에 포함된 이상한 내용(*exotica*)은 그 과정에서 제거되었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그 경우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디아테사론과 오경 사이에 있는 다른 하나의 닮은 점을 간단히 다루었다. 그들은 둘 다 발생한 후, 오랫동안 철저히 본문의 교정을 받게 되었다. 큐레턴 본문과 페쉬타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가 무엇이든, 디아테사론의 시리아 원본은 의심할 여지없이 페쉬타(Peshitto)¹³보다 이른바 큐레턴 본문과 유사하다. 11세기 아랍어 본문에 대한 시리아어 원본은 사실상 페쉬타였다. 내가 사실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구절이 페쉬타 역본과 다르고, 다른 어떤 유형의 시리아어 본문과도 분명하게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몇 가지 단락을 제외하고는 치아스카의 본문을 페쉬타와 대조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책의 구성을 살필 목적으로 내가 그것을 읽던 중에 나는 우연히 몇 가지 이형들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26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는 에메사(Emesa) 출신이라고 전해진다. 마태복음 17:25는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답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시몬이 그에게 예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타인처럼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라.” 마태복음 23:34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등.¹⁴ 나는 더 좋은 연결을 위하여 본문을 약간 수정하지 않은 구절이나, 아마도 무의식중에 이문 융합(*conflation*)이 발생한 많은 구절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것들을 감안한 뒤에도, 위에서 주어진 것들과 같은 일반적인 페쉬타 본문과 다른 이형(*variation*)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디아테사론을 고찰하는 모든 구약학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다. 만약 오경이 한 자료를 다른 자료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구별 기호 없이 소실된 원래의 자료들 자체를 가진 것처럼, 이 합성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면, 우리는 오경에 적용했던 방법으로 그것을 분해하고

13) 역자 주: 기원후 1세기 이후에 히브리 본문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구약 페쉬타는 특별히 칠십인역과의 관계, 타르굼과의 관계, 또한 본문 비평에 큰 가치가 있다. ‘단순한’,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페쉬타는 동방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J. Joosten, “La Peshitta de l’Ancien Testament dans la recherche récente”, *RHPR* 76 (1996), 385-395; 이수민,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 『Canon&Culture』 1 (2007), 105-124; S. P. Brock, “Version, Ancient (Syriac)”, *ABD* 6, 794-799.

14) 그러나 마 24:8, “이 모든 것은 홍수(*inundationum*)의 시작이다.”(p.73)는 치아스카의 오류이다. 아랍어는 고통(*doloru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요소들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경의 합성적 성격을 알아차린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합성 복음의 합성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료들이 얼마나 근접하게 병행하는지, 모자이크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상관없이, 개념에서 동질성(homogeneousness)의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는 곧장 그것의 끝으로 가지 않고, 그 자신의 두 배가 된다. 모순이 아니더라도, 이중어(doublet), 연결 장치(joint)와 이음매(seam)와 같은 불일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우리가 문학을 구성할 때 전체의 옷감에서 조각 누비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기호이다. 나는 유아기에 대해 두 이야기가 보이는 충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같은 것을 다른 경우에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18장에서, 독자는 마가복음 6:20으로부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읽는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말에서, 독자는 마태복음으로부터 그가 그를 죽이기를 원했고 단지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또 다시 독자는 마가복음으로부터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헤롯이 몹시 슬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장에서, 독자는 마가복음 6:16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베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와 조금 뒤에 누가복음 9:9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를 가지고 있다. 12장의 시작에서 독자들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예수가 배에 오르고, 건너가서 그 자신의 도시로 왔다.”를 읽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말인 누가복음 8:38로부터 독자는 여전히 거라사인의 땅에 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¹⁵⁾ 등을 읽는다. 사례(instance)는 거의 무한하게 증가될 수 있었다. 다른 종류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는 4장에서 마태복음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와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이다. 디아테사론에서 누가복음 3:23과 요한복음 1:29-31은 마태복음의 이 두 구절 사이에 끼워졌고, 그 결과로 “하지만 요한은 그를 금했다.”는 말이 선행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다. 이중어의 예 또한 많다. 3장에서 마태복음으로부터, 그리고 4장에서 요한복음으로부터, 선포의 말(*Vox clamantis*)이 주어진다. 바닷가에서의 첫 제자들의 부르심은 말의 병행으로써 두 번 언급된다. “나는 너를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5장)와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 것이

15) 역자 주: 눅 8:28.

다.”이다(6장 - 추가된 말을 관찰하라.). 예를 들어, 29장의 시작 부근에서 누가복음 18:30과 마가복음 10:30b처럼 겹치는 것은 일반적이다. 사실상 같은 것을 세 번 말한 예는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에 관한 예수의 말인 39장의 초반부에 있다. 특히 부활 후 여성들에게 일어난 천사현현과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 기사들이 바로 저자가 아무것도 누락하기를 원하지 않음으로써 세부 묘사가 혼란스러울 만큼 늘어난 부분들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디아테사론의 합성적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가 보기에 오경에서 본문의 합성적인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현상 중에, 디아테사론에서 확실하게 예시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주는 간접적인 증명은 완벽하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몇몇은 독자적인 경우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 곧 만일 요구가 잘 해명된다면 — 이것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단순한 가설이 그들 모두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가설의 정확성은 우리 앞에 놓인 실제 사례, 곧 동일한 현상이 문헌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바로 이 사례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우리가 오경에서 거두었던 것만큼 성공적으로 합성 복음을 분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확신하여 답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어 디아테사론을 가지고 있다면, 오경에서 우리가 거의 완전하고 확실하게 P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만큼, 넷째 복음서에 속한 몫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더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천국(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와 같은 차이점들을 관찰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마가복음의 “즉시(straightway)”와 같은 독특한 표현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것만큼 개념의 차이점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예언자들에 대하여 J, E나 D, 또는 P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외적 준거(external criteria)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복음서들은 한 시대와 한 분파(circle)의 산물이다. 그것들은 복음 전승의 한 공통 기초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는 비록 개별 복음서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탐구해 왔지만, 성서 비평이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문제보다 P나 D라고 부르는 오경의 주요 자료 가운데 하나의 구성에 대한 문제와 더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무언가가 가능할 것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나머지는 매우 많아질 것이다. 분석이 모든 것

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경우 그러한 분석 작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수하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합성 복음에 착수한 호메로스풍(Homeric)의 학자로서 비평가는 훨씬 적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오경 자체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진 분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적을지라도, 오경이 합성적인 저작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디아테사론에서 공관복음의 요소를 분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그 저작이 합성이 아님을 증명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책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구약 비평가들과 그들의 반대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분석에 맞서는 수많은 일반적인 논거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 주려고 노력한 것과 같이 타티아누스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¹⁶⁾

<주제어>(Keywords)

타티아누스, 디아테사론, 개별 복음서들, 조화 복음서, 오경, 페쉬타, 시리아 교회.

Tatian, Diatessaron, separate Gospels, Harmony, Pentateuch, Peshitta, Syriac Church.

(투고 일자: 2018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5일)

16) 아랍어 디아테사론과 에프라임의 주석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편한 요약은 S. Hemphill, *The Diatessaron of Tatian* (London: Hodder & Stoughton, 1888)에서 찾을 수 있다. 부록은 랑케(Ranke)의 *Codex Fuldensis*에서 라틴어 조화 복음서의 머리말(*capita*)을 덧붙인다.

<참고문헌>(References)

- 드롭너, H. R., 『교부학』, 하성수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서원모, “예언자적 역사해석 - 시리아 교부 에프렘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11 (2002), 125-149.
- 서원모, “시리아 교부 에프렘의 실존적 신학”, 『선교와 신학』 24 (2009), 201-242.
- 서원모, “시리아 그리스도교의 가난 담론 - 에데사(주후 4세기 말-5세기)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4 (2012), 199-227.
- 브로크, 세바스티안, 편역, 『시리아 교부들의 영성』, 이형호 역, 서울: 은성, 2003.
- 송혜경, 『신약 외경 - 입문 (하권): 신약 외경 각론』,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2, 서울: 바오로딸, 2016.
- 이수민,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 『Canon&Culture』 1 (2007), 105-124.
- Brock, S. P., “Version, Ancient (Syriac)”, *ABD* 6, 794-799.
- Hemphill, S., *The Diatessaron of Tatian: a Harmony of the Four Gospels Compiled in the Third Quarter of the Second Century*, London: Hodder & Stoughton; Dublin: William McGee, 1888.
- Joosten, J., “La Peshitta de l’Ancien Testament dans la recherche récente”, *RHPR* 76 (1996), 385-395.
- Petersen, William L., “Diatessaron”, *ABD* 2, 189-190.
- Petersen, William L., *Tatian’s Diatessaron: Its Creation, Dissemination, Significance, and History in Scholarship*,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25, Leiden: Brill, 1997.
- Philips, G., *The Doctrine of Addai, the Apostle, Now First Edited in a Complete Form in the Original Syriac*, London: Trübner & Co., 1876.

<초록>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과 오경 분석

기원후 2세기에 시리아에서 활동한 타티아누스는 네 개의 개별 복음서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디아테사론이라고 불리는 단권 복음서를 만들었다. 타티아누스가 디아테사론을 만들게 된 동기는 개별 복음서들에 나타나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의 차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네 복음서를 일관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세기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디아테사론은 5세기 초반까지 시리아의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디아테사론은 신약성서 사본학의 측면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경 형성사의 가설에도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한다. 네 개의 복음서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이른바 오경의 네 문서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유비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비록 오경을 이루는 네 개의 자료(JEDP)가 네 개의 개별 복음서처럼 독립적인 형태로 남아있지 않지만, 오경의 최종 편집자가 분리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하나의 합성적인 문서인 오경으로 통합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아테사론은 오경의 형성사와 신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